

# 소주 출고가 인하… 식당·소매점 반영 ‘촉각’

정부 기준판매비율 도입 세금 인하  
보해·하이트진로 등 출고가 내려  
주점·가정용 등 판매가 적용 기대  
서민체감 실질 인하방안 목소리도

“고철을 팔면 kg당 1000원 정도를 받는데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는 소주 한 병 가격이 1600원을 넘다보니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냅니다. 이번에 꼭 소주 가격이 내려오면 합니다.”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낮아지면서 주류 제조업체들이 일제히 소주 출고가를 인하한 가운데 동네 슈퍼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가정용 소주제품 가격을 내려 고령층과 저소득 가구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지 관심이 높다.

28일 주류 제조업체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보해양조 등 주요 주류업체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소주제품 출고가를 인하했다. 하이트진로는 주요 제품인 ‘참이슬하례쉬’와 ‘진로’ 원가를 각각 10.6% 내렸으며 롯데칠성도 자사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주류 세금 과세표준이 작아지면서 국내 주류제조업체들이 자사 소주제품 출고가를 인하했다.

소주제품인 ‘처음처럼’, ‘새로’ 출고 가격을 각각 4.5%, 2.7% 내렸다.

광주·전남지역 주류제조업체인 보해양조도 지난 22일부터 ‘잎새주’ 출고가를 기존 1246.7원에서 10.6%(132.6원) 낮췄다. ‘보해소주’는 기존 출고가 1199원에

서 1071.48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소주제품 가격도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업체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체들의 소주 출고

가격 인하분을 판매원가로 받아들였으며 소비자 판매가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도 소주 판매가 인하 시점과 인하율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광주지역 소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값은 1600원~2000원 선으로, 주류 물가 상승분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고령층과 저소득 가구들이 가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소주 출고가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에도 적용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동구의 한 경로당 부녀회장인 김모(78)씨는 “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100원~2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신다. 이것저것 다 오르니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달래줄 소주값이라도 낮아져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가계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연금이나 자식들 용돈 받아 생활하시는데 소주값 내린다는 소식에 기대를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고철과 종이 박스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기모(80)씨는 “요즘 소주

값이 너무 비싸다. 하루 종일 고철이나 종이박스를 찾아 돌아다녀도 1600원 소주값을 못 본다”며 “우리 같은 사람에게 100원은 종이 박스1kg 가격이라 요즘은 겁이 나 병 소주를 사 먹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소주값이 낮아지면 한숨 좀 돌릴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주업계 출고가 인하 조치에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소주제품 출고가가 대부분 오른 상황이어서 기존 상승분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서다. 때문에 서민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업계관계자는 “업계에선 지난달 올린 소주값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류 제조업체 인하율이 딱 지난달 인상률과 비슷해 아마 기존 가격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 광주은행, 위니아사태 위기극복 함께한다

김치냉장고 1억8천만원 상당 구매

광주은행이 대우위니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협력업체 위기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시는 2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위니아 담채 구매 운동 동참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 이상채 영업2본부 부행장, 강대옥 시청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광주시가 전개 중인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 취지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 위니아 정상 가동과 협력업체의 신속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담채 사주기 운동 동참에 적극 나섰다.

광주은행은 1억8000만원 상당의 위니아 담채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대우위니아 협력업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공장도 살리고자 시·정부·금융권 등 모두가 원팀으로 뛰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로 광주시는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동참해주신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 지역사회에 대해 선물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잡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행사장에서 김치냉장고를 전시하고, 시청 1층 시민홀에서도 전시·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제품인 ‘위니아 담채’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권범 기자

## 유탑호텔 ‘값진 호캉스’ 신년 이벤트 진행

해돋이·라이브 공연 등 마련

유탑호텔은 2024년 갑진년을 앞두고 다채로운 신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유탑유블레스호텔 제주는 새해 첫날 해돋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년 1월1일 새해 희망찬 기운을 북돋아 주고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일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2024년 1월1일에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일출 행사와 함께 따뜻한 차와 커피, 어묵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롭게 오픈한 유탑 라운지 라이브룸에서는 매일 밤 함덕 바다의 낭만과 함께 뮤지션들의 라이브와 DJ 공연을 선보이고 있어 다양한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는 새해 1일 투숙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포춘 쿠키를 증정하고 1월 한 달간 오픈 고객

체크인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2024년 한정판 와인을 제공한다. 또 조식과 라벨에 용무늬가 그려진 2024 용의 해 한정판 안투 와인, 파티 키트로 이뤄진 ‘해피 2024 패키지’도 출시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1월 둘째 주 객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1월 한 달 조식 1인, 요트투어 1인, 미러볼가든 프리드링크 2잔 무료 등의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광주 유탑부티크호텔&레지던스는 1월에도 조식 무료 서비스를 이어간다. 대형 거실과 건식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자쿠지 등을 갖춘 펜트하우스급 객실인 아너스 프레지던셜 스위트룸은 1월까지 최대 4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유탑호텔은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 등 다양한 상품을 경품으로 내건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계획 중이며 내년 1월10일에는 객실을 최대 80% 할인하는 ‘U-DAY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곽지혜 기자

## 광주은행, 임원 5명 발탁… 영업력 강화 조직개편

전문성·시너지 확대 중점  
유사업무 통합·소관부서 조정

광주은행은 임원급 부행장보 5명을 내부 발탁해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기존 부행장 4명이 퇴임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영업실적이 우수한 영업통과 전문성을 겸비한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며, 영업전략 부문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케팅본부와 데이터전략본부를 영업전략본부로 통합해 영업력 강화 및 영업자산 증대를 제고하고, 여신지원팀과 수신지원팀을 여신전략부와 수신전략부로 승격시켰다.

또 디지털개발팀과 자금세탁방지팀을 각각 디지털개발부와 자금세탁방지부로 승격시켜 디지털 대응능력과 AML(Anti-Money Laundry)시스템 관리 체계 및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WM고객부 산하 자산관리팀을 신설했으며, 지역상생과 밀착경영, 세밀한 사회공

헌과 효율적인 브랜드전략 수립을 위해 홍보부와 ESG공헌부를 브랜드전략부로 통합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업무능력과 열정, 대내외 평판을 모두 감안했으며, 무엇보다 광주은행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고객중심 지역 대표은행으로 만들어 갈 책임자를 신임 임원으로 발탁했고, 각 임원장점을 살려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조직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며 “앞으로도 공경·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전문성과 영업력을 인정받는 직원들을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상의, 지역기업 미래신산업 전환 지원 성과

69개 기업에 집중컨설팅  
45억 매출 124명 고용창출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2023년 미래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홍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성과홍보회에는 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유망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했다.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69개 기업에 미래신산업 진출 집중컨설팅, 맞춤형 기업지원을 실시, 124명이 신규채용 됐다. 사무관리직 35명(28.2%), 연구직 34명(27.4%), 전문기술직 40명(32.3%) 생산직 13명(10.5%), 서비스영업직 2명(1.6%) 등으로 연구직, 전문기술직이 60%가량 채용돼 사업 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평가다.

또 해당 사업을 통한 직간접 매출액은 약 45억원으로 파악됐는데, 8건의 특허출원이 있었고 28건(264억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외에도 R&D(연구개발) 등 정

부,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38건(19억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기록하는 등 다수의 우수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수면검출과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버스 탑승번호 표시 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아이테크 이창주대표이사는 “광주상의 미래신산업 진출 집중컨설팅, 피보팅 사업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해 R&D 사업계획서 작성, 특허 출원 2건, 구매계약 체결 3건, 신규채용 2명, 광주시 실증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 전남신보, 부패방지·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가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재인증을 받았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여부를 객관적 심사를 거쳐 검증·인증해 주는 제도다.

전남신보는 국제사회의 인권경영 이해 요구 및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지난 2020년부터 기관의 인권영향평가를 지속해왔으며, 올해는 특히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발생 위험도 감소 노력등을 인정 받아 기관 최초로 인증을 통과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공공기관 및 기

업 등의 활동에서 부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적 표준 규격이다.

전남신보는 최초 인증 후 두 차례의 사후 심사를 모두 통과하는 등 매년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관리하며 ‘부패 ZERO’를 목표로 청렴경영을 실천해 이달 부적합 사항 없이 갱신심사를 통과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재인증에 성공했다.

박소영 기자